

2018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충청남도 논산시
- 강경지역아동센터



2018. 8

교육봉사는 이전에도 경험했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의 교육봉사는 처음인데다가 학교 대표로 봉사를 가게 되어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 다행히 이화봉사단 팀원들이 이전에 방문한 기관이라 아이들이 먼저 관심도 보여주고,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주었다. 흔히 교육봉사는 봉사자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하느냐를 이야기 하지만, 사실 관건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든 진행이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먼저 이화봉사단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친절하게 해주어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팀장으로서 이화봉사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봉사기관과 소통하고,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어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 스스로의 역량을 시험해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교육봉사는 단순히 아이와 지내면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고, 여러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 전공생이 아니어도 대학생이라면 한번 정도는 경험해보면 좋은 성장의 시간이다.

순식간의 4박5일의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도 우리도 헤어짐은 힘들었다. 이미 2번이나 온 봉사자들이 이화봉사단에 있었기 때문에, 정이 든 아이들은 우리가 당연히 다시 올 것이라고 믿는 듯, 우리에게 겨울에 보자, 가을에도 와달라는 말을 했다. 나 역시도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지만, 정말 다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쉽게 약속은 못하고 그저 안아주었다. 정이 드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봉사 중간에는 너무 짧은 시간동안 아이랑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 되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배움의 의미가 있을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물놀이하고, 부채를 만들고, 책을 함께 읽었던 잠깐 동안의 추억이 아이들로 하여금 다음 겨울, 여름을 기대하며 그 사이를 즐겁게 지내게 하는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이화봉사단이 갖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화봉사단은 나에게 여름날의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주었다. 그리고 또 내가 현재 선 위치, 그리고 미래 나아갈 진로에서 내가 만난 많은 아이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한다.

지난 겨울 강경에서 느꼈던 행복을 잊지 못해서 이번 여름에도 강경에 방문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몸과 마음이 많이 성장해있었다. 유치원에 다녔던 7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5학년이던 아이가 6학년이 되어 중학교 입학 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지난 겨울에 봤던 멘토들을 기억해주었고 그 덕인지 멘토들에게 마음의 문을 빨리 열어 주었다. 아이들은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활동들을 좋아해주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이번 활동도 친구들과 가족들을 향한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사탕이나 상품을 받으면 자신의 형제들에게 망설임 없이 나누어 주었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여서 이번 여름도 정말 행복한 5일을 보낸 것 같다. 아직도 '선생님'하고 크게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자주 떠오른다. 지난 5일은 많이 부족한 선생님이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며 내가 이런 예쁜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즐거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많이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강경 아이들과 함께 놀던 시간은 여러 가지 일에 지쳐있던 내 자신의 휴식 시간 이었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강경의 아이들은 이미 나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아이들이 되었고 그 아이들로 인해 사랑, 배려, 믿음을 느낄 수 있었기에 아이들과의 인연은 나의 대학생활의 터닝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박 5일 동안 아이들과 정도 많이 들고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었다. 벌써 세 번째 방문하는 강경 중앙 지역아동센터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들, 많이 큰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된다.

준비해 간 활동을 진행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다. 그 전에는 낯선 환경에서 낯선 아이들 앞에서 활동을 진행하느라 급급했는데,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한 아이들 앞에서 진행하는 활동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조금 더 활동 내용에 집중해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고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훈장을 하나하나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편지를 쓰면서 5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정말 좋았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가졌고, 지난 활동을 했던 나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었다.

3번째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이러한 만남이 주기적이 될 것 같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이화봉사단을 통해 아이들을 또 보러올 것 같다. 또, 이화봉사단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보러 강경에 또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4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나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교육봉사는 처음이었기에 첫 날에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꾸밈없는 아이들의 모습에 금방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봉사단에서 미리 준비해간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이들이 즐거워하면서 잘 따라와주었기에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아이들 간에 종종 마찰이 발생한 적도 있었는데, 분명 화가 날 법한 상황에서도 배려하면서 웃고 넘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반성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에게 주기 위한 훈장을 만들면서 지난 4박 5일을 돌이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훈장을 모두 수여하고 떠날 때 아이들이 헤어지려하지 않는 모습에 더욱 안타까웠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는 기차에 탔지만 서울로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봉사활동'을 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한 이화봉사단이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활동과는 달리 교육봉사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여름방학을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 다음 겨울방학에도 일정이 맞는다면 다시 강경중앙지역아동센터로 봉사활동을 가고 싶다.

강경으로 세번째 방문하면서 얻은 것은 따뜻함이었다. 사실, 명목상으로는 내가 아이들에게 봉사자로서 다가갔지만 그 안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갔다.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우선하며 평면적인 관계에 속해 있던 일상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따뜻함과 배려를 다시금 배울 수 있어 행복했다.

이번 자존감 프로그램이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를 설명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목적 자체는 매우 좋았지만 그 과정이 아쉬웠다.